



보도 일시	2022. 1. 21(금) 15:00	배포 일시	2022. 1. 21.(금) 15:00
담당 부서	대변인실 디지털미디어기획팀	책임자	과장 하광식 (044-215-2430)
		담당자	사무관 강병구 (lionkang@korea.kr)

홍남기 부총리, 청년들의 진솔한 생각과 의견 청취 - 22년도 기재부 대학생 기자단과 간담회 개최 -

-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이하 홍 부총리)은 1월 21일(금) 15:00,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22명과 간담회를 가졌음
 - 이번 행사는 올해 활동하게 될 제15기 기자단* 위촉을 축하하고, 한해 활동계획과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,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청년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음
 - * 총 26명으로 임기는 '22.1.21. ~ '23.1.20. (※ 89명이 지원, 경쟁률 3.6:1)
 - 대학생 기자단은 기재부 및 경제 분야 주요 정책을 참신한 시각으로 소개하는 청년 경제통(通)들로서, 올해는 영향력이 커져가는 영상 매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상 전문 기사를 1명 선발하였으며,
 - 한국에 대한 해외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 기자 1명을 추가로 선발하였음
 - 행사 참가자 전원은 2차 백신 접종 완료 및 PCR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 등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였음
- 먼저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음
 - 고용, 부동산, 청년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행사 직전 현장에서 즉석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기자단이 답변한 결과를 확인하면서,

- 홍 부총리는 “세상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오해를 받는 사실들이 있는데,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간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, 이런 부분을 잘 살피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”고 당부하였음
- 이어 기자단들이 향후 취재계획과 취재 활동의 주안점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후, 청년으로서 기자들의 고민과 정부 청년정책에 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음
- 대학생 기자단은 일자리, 주거, 복지,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관점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음
 - 청년들은 효과가 저조한 형식적 지원정책 보다는, 실무경험을 쌓거나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필요성에 입을 모았음
 - * 컨설팅 쿠폰수강료 지원 등 단순 지원금 제공 → 취업담당자 1:1 컨설팅, 실시간 강의 제공
 - 이에 대해 부총리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성을 강화시켜가면서,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해가면서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이 현장의 수요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
- 행사 말미에 홍 부총리는 대학생 기자단에게 기념품으로 유척(鎡尺)과 함께 탁상용 등(燈)을 선물하면서,
- “유척이 의미하는 ‘정확·공정의 가치’를 가슴에 새기고, 어둡고 가려진 부분을 밝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”고 강조하였음
- 끝으로 홍 부총리는 대학생 기자단이 기재부와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길 당부하며,
-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향후 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